

◆ 계승범, 2008, “조선 특사의 後金 방문과 明秩序의 균열”, 『한중관계 2000년: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1. 머리말

- 1596년, 1621년 조선의 대후금 차관파견 사례 비교

2. 임란 중(1596년) 신충일의 누루하치 방문

◦ 1595년 누루하치의 교섭 재개 요청

- 조선: 명의 금법 들어 거절, 차관 접대 만포첨사에게 지시

◦ 동년 7월, 후금 다시 만포로 차관+조선인 14명 송환

- 조선: 거절(남쪽에서 왜군과 대치상황, 명 군대 조선 주둔)

◦ 조선 영내 잠입 건주여진인 27명 피살사건 발생

- 누루하치 정식항의, 보상 요구 + 보복 침범 소문

- 조선의 대응 ① 요동도사에게 선유 요청→성과 없음 ② 평양 주둔 명나라 장수 胡大受(호대수)에게 선유 요청→부관 余希元(여희원) (조선국왕이 결재한) 선유문 들고 만포 도착→여희원 家丁 楊大朝(양대조)+조선 역관 하세국이 10월 18일, 누루하치 도성 불아랍으로 출발

◦ 주한 명군 통한 대리접촉

- 여희원과 馬臣(마신)의 만포 회담: 한인.조선인 송환 자찬, 여진인 피살 보상, 서울 상경 허용, 교통 재개 제안 vs. 여희원은 20만 대군으로 누루하치 응징 위협, 보상 불가

- 누루하치의 하세국과 양대조 환대, 하세국 독대

◦ 조선 단독 답방

- 하세국이 받은 누루하치 친서에 대해, 명장 호대수의 답신 지체

- 조선 조정 단독으로 ① 만포첨사 명의 답신(여진인 살해 책임자 문책+무단 월경 방지하자는 호의적 내용) 결정 → 서울 남부주부 신충일을 임시로 만포군관으로 임명, 누루하치에 보냄

② 차관 파견 해명성 자문(건주여진 정탐 목적) 요동도사 산하 협수부총병부에 보냄

- 신충일, 역관 하세국, 나세홍 대동하고, 12월 28일~1월 5일까지 불아랍 체류, 환대 속 회담

- 건주여진측 제안: 우호관계 체결, 누루하치의 조선직첩 제수, 서울 상경 허용

- 신충일 답변: 관직 제수 건은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답변 회피, 상경 건은 명의 금법 들어 불가

- 누루하치는 만포첨사 명의 공식 서한 받아서 조선과 대화 창구 열렸다는 데 만족 ① 조선에 강경하게 나갈 경우, 명-조선 합세 건주여진 압박 가능성 ② 당장 조선 침공 불가능 (북쪽 배후 해서여진, 명의 참전 가능성, 군사력 형량: 왜의 조총, 조선의 총통 등 건주여진 못갖춘 화력에 관심)

◦ 요동아문 楊鏞(양호) 진노, 조선에 자문

- 금약 어기고 누루하치와 사사로이 강화...

- 조선: 협수부총병부에 이미 자문, 선유의 주체는 호대수, 조선은 사통한 적 없음

3. 명·후금 전쟁 중(1621년) 정충신의 후금 방문

- 누루하치의 명질서 이탈과 위협
 - 조선에 더 고압적, 수차례 국서 보내 양자택일 재촉, 그러나 광해군 이중외교의 여지 존재
- 1621년 후금의 요동 장악 이후 대조선 외교 변화
 - 조선 국왕을 너(汝)로 하대하는 국서: 요동에서 조선으로 넘어간 난민 송환하라
 - 황제만 쓸 수 있는 조(詔) 사용, 만포 아닌 의주(명과의 공식 통로)에서 국서 전달
- 조선의 반응
 - 비변사의 대명사대 배금론 vs. 광해군의 대화론 → 요동 군문 통지 후, 국서 없이 차관(만포첨사 정충신) 파견하기로 절충
- 정충신과 언가리의 회담

번호	안건	언가리(후금 입장)	정충신(조선 입장)
1	우호관계 양상	맹약	신의
2	명 관계	우리와 사귀겠다면, 앞으로 남조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명과는 영원한 군신·부자관계이므로 불변. 인군은 의리로 섬기고 이웃은 신의로 사귈다
3	사신교환	차관 답례로 우리도 서울에 차관을 보내겠다	전례 없는 일이며 내 소관 밖
4	모문룡	모문룡 군사 요구하면 조선은 도울 것	아니다. 도우려면 벌써 도왔을 것
5	조선군 포로	석방 원한다면 몸값 지불	포로 문제는 소관사항 아님
6	교통로	기어이 만포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나는 만포 관원이므로 만포로 가서 복명해야 함
		아니다. 모문룡이 용천에 있으므로, 의주의 길을 열지 않고 몰래 돌아가려는 속셈. 사귀든지 말든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의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겠다.

- 누루하치 만나지 못했고, 입장차만 확인했으나, 환대 극진
 - 후금의 대조선 외교 강경화
- 비변사 국서 불가 vs. 광해군의 정식 국서 입장 대치 국정 마비
- 후금의 (조선-후금 외교업무 전담하던) 역관 하세국 처형, 역관 억류, 만포첨사 명의 서신을 언가리가 찢어버림
- 광해군은 1622년 봄부터 후금의 대조선 강경 기조 원인으로 ① 조선의 지속적 답신 기피 ② 조선의 모문룡 후대 ③ 명나라 군사의 용천 상륙
- 광해군, 1622년 9월 조선 국서 후금에 보냄
 - “조선국 왕이 후금국 칸 전하에게 편지를 보낸다(朝鮮國王致書後金國汗殿下)”
 - 약 4년간 후금은 (+요서 공략 및 내부사정으로) 조선에 압력 가하지 않음

4. 결론

◦ 신충일과 정충신의 후금 방문 비교

번호	항목	신충일	정충신
1	방문연도	1595-1596년 (8일)	1621년 (10일)
2	상황	전쟁 중 (명.조선 vs. 일본)	전쟁 중 (명 vs. 후금)
3	계기	누르하치의 조선 침공 준비 소문	후금의 '조서' 및 긴장 고조
4	조정의 태도	파견	왕: 파견+서신 전달 비변사: 파견 자체 반대
5	방문 목적	긴장 완화 모색	왕: 후금과의 대화 창구 개설 비변사: 후금의 상호 교통 제의 거절
6	차관의 직급	만포군관(종 6품)	만포첨사(종 4품)
7	차관의 태도	기록 없음	발탁 꺼림
8	명의 사전 허락	독자적 결정	요동군문의 허락 받음
9	서신 휴대 여부	휴대(만포첨사 명의)	없음(비변사의 반대 때문)
10	누르하치와 면담	누르하치와 접견 참모들과 실무 회담	누르하치가 접견 거부(서신 없 어서) 참모들과 실무 회담
11	차관의 임무 수행 자세	조정 지시에 충실	왕명 무시하고 비변사 뜻에 충 실
12	방문 성과	누르하치 제안 일부 거절하면 서 소기 목적 달성	왕의 의도 무시하고 비변사 뜻 에 따른 결과 아무 성과 없음

◆ 계승범, 2011, “*鄉通事 河世國과 조선의 선택*,” 『만주연구』11, 만주학회.

1. 머리말

- 향통사 하세국 인물 행적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을 통해 17세기 전반 조선의 선택이 가지는 동아시아사적 의미를 거시적으로 이해

2. 임진왜란 중 하세국의 활동

- 1595년 楊大朝(양대조)의 퍼알라(불아랍) 방문에 역관으로 수행
- 한 명씩 따로 들어가 누르하치 접견. 양대조가 먼저 들어가 拜禮, 하세국이 이어 들어가 揖禮
- 선유문이 여희원 이름으로 작성, 누르하치는 여희원 앞으로 답서, 그러나 하세국이 수령해서 조선으로 가져옴 → 명을 대리내세웠지만 실질적 파견 주체는 조선
- 1595말-6초년 조선 차관(만포군관) 신충일의 퍼알라 방문에 향통사로 수행
- 누르하치가 중문 밖까지 나가 조선 사절단을 맞이하고, 서로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신충일

의 좌우에 통사 나세흥과 하세국이 시립

- 두 차례 회담 결과, 양국 긴장 완화

- 누르하치의 정세판단: 조선과 국교 수립 원했으나 강경하게 나가지 않음. 조선 침공 불가능, 유화책, 군사력 강화 노력 (신충일 일행이 다녀간 지 두 달 후 만포에서 조선의 銃筒 구입 시도, 요동으로부터도 총통을 입수해보려고 누차 시도)

- 1596년, 여희원의 퍼알라 방문에 대동

- 하세국의 보고: 조선 신충일 일행을 맞을 때와는 달리, 누르하치는 騎步 9,200명을 포열시켜 위압감 고조

- 하세국의 활약

-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 동향, 요동 정세에 관한 정보를 하세국에 의존
- 1595-1607년 사이 8차례 건주여진 방문
- 만포 향통사로 근무, 건주여진/후금과의 접촉 최일선

3. 심하 패전(1619. 3) 이후 하세국의 활동

- 1618년 '요동전쟁' 발발: 명의 요구에 조선 출병 (하세국도 통사 및 길안내 임무)

- 살리호전투 대패로, 東路軍 배속되어 있던 조선군 좌우영은 모두 궤멸, 도원수 강홍립 투항
- 전투 닷새 전에 하세국 후금에 파견, 퍼알라에 억류되었다가, 조선군과의 소통에 투입
- 후금 국서와 함께 조선군 포로 5명 석방, 하세국은 장교 4명과 함께 포함되어 만포에 돌아옴

- 후금의 국서

- '後金國汗書達朝鮮國王'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
- 누르하치는 명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 징병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으며, 金과 고려의 우호 관계를 예로 들어 후금과 조선의 우호를 강조하면서, 하늘의 뜻을 버린 명을 응징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고 제의. 조선 국왕의 답신 국서 요청

- 광해군 비변사의 대립

- 두 달간 논쟁 끝에 절충적 답서를 작성, 하세국 편에 보냈으나, 명과 후금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쌍방의 대조선 불만과 의심만 커짐

- 후금의 2차 국서(1619. 7)와 후금 내 강경파 vs. 온건파의 대립

- 훨씬 고압적. 후금과 명 중 양자택일, 후금과의 맹약 공식화 & 어인 찍힌 국서 요구
- 두 번째 국서 답신 못 받고, 조선군의 요동 진출 소문으로 인해 후금 내 대조선강경론 확산
- 11 월까지도 아무런 답신이 없자, 누르하치는 小農耳, 하세국 만포로 파견
- 소롱이의 우호적 보고, 조선으로부터 포목, 종이, 소금 등 도착으로, 분위기 완화
- 누르하치의 조선 요동 파병 의심 계속

- 후금의 3차 국서(1620. 3)

- 하세국이 직접 휴대하고 서울까지 입경
- 광해군과 비변사 타협 결과, 구두 답신 결정. 하세국이 1620년 5월, 피알라로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직접 전달
- 구두 답신 내용: 명의 국경 감시로 서신 회답 어려움, 조선군 포로 문제 처리는 후금의 재량, 월경 여진인 송환 고지
- 후금도 답례로 장교 3명 포함 조선군 포로 10명 추가 송환
- 요동 총공세 앞두고 조선 참전 가능성으로 고심했던 누르하치는, 이후 심양 대공세 시작

4. 후금의 요동 장악(1621.3) 이후의 정세와 하세국의 죽음

- 후금의 요동 장악과 대조선 태도 변화
- 하세국의 죽음
- 1621년 6월, 비변사는 하세국으로부터 후금의 군사력과 廣寧 전투 추이 자세한 첩보 듣고 있었음 (광해군일기)
- 1622년 2월, 하세국으로부터 연락이 끊겨 비변사는 요동 상황 정확한 정보 부재로 혼란 (광해군일기)
- 1622년 2월말에 조선 조정은 하세국의 처형 소식 입수
- 이유: (광해군일기) “그가 말을 자꾸 바꾼 탓에 처형되었다”
- 모문룡 문제 해결 및 국서 답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변사-광해군 대립으로 조선이 반응 보이지 않자, 경고와 보복 차원에서 처형 추정

- 1622년 후금의 대조선 강경화 원인
- 지도부 내 강경론자들 주도권 장악
- (1621년 가을 명의 명령으로) 1622년 3월 명의 감군어사가 병사 4000을 이끌고 용천 상륙, 모문룡 군사와 합세, 4월 서울 방문
- 광해군 의견 ① 조선의 지속적 답신 기피 ② 조선의 극진한 모문룡 접대, ③ 감군이 이끄는 명수군의 용천 상륙 때문

5. 맺음말: 조선의 선택

- 조선의 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 계승범의 일관된 주장
- 하세국은 후금 지도부 강경파(홍타이지)에 의해, 광해군은 조선 신료들 강경파(주자학 화이론자)의 손에 죽음
- 대조선 온건파 누르하치가 죽고 강경파 홍타이지가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정묘호란(1627) 발생, 홍타이지가는 병자호란 親征(1636~1637)
- 대화 통한 국교 정상화와 평화공존을 거부한 두 나라 지도부의 필연